강 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 김완자 **편집인**:조봉호 **발행일** : 매월 5일 **발행처**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 전국 02-675-9068 (FAX: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867-5019 광주 062-526-6992 (FAX:062-529-1552) 마산 0551-48-6264 (FAX:0551-48-6265) 대구 053-764-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2-1221

창립5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끝나

공청회 개최, 모범회원에게 시상도

참교육 학부모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공청회 및 기념식을 가졌다.

'교육자치제와 학부모운동'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와 기념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회원과 자문위원, 사회단체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창립을 축하해 주었다.

공청회에 뒤이어 가진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교조 정해숙위원장과 여성단체연합 한명숙회장의 축사, 시인 도종환님의 축시(낭송 중서부지회장 박재신)"진짜 어머니 아버지들"이 낭송되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마산 학부모 노래패가 부른 아름다운 노랫말의 '어머니, 손을 잡아 줘요'라는 곡이 처음 발표되어 이날 기념식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또 학부모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단체와 개인에게는 시상이 주어졌다.

단체상은 여성단체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 총학생회연합 건준위에 주어졌고 개인상은 각 지회가 추천하는 회원에게 모범회원상, 학부모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도와준 남편에게는 외조상이 주어졌다.

△모범회원상 - 김지란(마산지회), 김옥순(부산지부), 조은아, 이은옥(전주지회), 김은숙(중서부지회), 박경수, 김순이(관동지회), 이희경(강서남지회), 이영화(대구지회), 오명자(울산지회), 이숙자(출판국).

△외조상 - 고승하(마산지회), 신부식(부산지회), 김정남(중서부지회)

전국에서 모인 회원과 자문위원, 사회단체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창립을 축하해 주었다.

참교육 학부모회 창립 다섯돌에 부쳐

진짜 어머니 아버지들

도종환

교문 밖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보세요
그들의 웃음 속에서 마구 피어나는 들꽃송이
달려오는 발걸음마다 솟구쳐 오르는 새들의 날개
보이지 않습니까 여름 향나무숲의
살아있는 향기들 달려오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 새들 새장 속에 있어야 안심하고
그들의 하늘 가두어 버린 어버이들 많습니다.
마음껏 뻗어갈 수 있는 끝없이 열린 실뿌리
실뿌리가 만나야 할 싱그러운 흙밭을
확분만한 크기로 도막도막 잘라내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거침없는 바람도 만나고 푸르른 하늘에 팔도 걸쳐 놓은 채
싱싱하게 일어서야 할 가지와 이파리를
분재처럼 철사줄로 동여매어
길을 들여버린 어른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땅에 진짜 어버이들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찾던 푸른 하늘 눈동자 가득 넘치고
그 속으로 깃을 치며 날아가는 새떼같은 아이들의
눈부신 하늘 담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제 힘으로 뿌리 내리는 어린 나무 머리 위에서
빗줄기같은 사랑 보내면서 내색하지 않는 이들
남의 아이들 내 아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보듬으며
그들이 튼튼한 재목으로 크게 한 뒤
두 팔 가득 벌려 숲으로 불러들이는 이들 보았습니다
그들을 믿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며
그리하여 도란도란 바다로 향해 가는
강물같은 진짜 어머니 아버지들 있습니다
이 땅에 진짜 어버이들 여기 있습니다

학생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홀로 가슴앓이하는 우리 아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책

마음의 벽을 트는 대화의 방법과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변화시키는 상담의 지혜를 소개.

① 상담의 기초이론
② 교사효율성 훈련
③ 감수성 훈련
④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교육상담소 지음/216쪽/4,500원

푸른나무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116-3 전화 701-0657 719-9650 팩스 702-2013

논리적인 사고와 다양한 글쓰기를 요구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학부모가 건네주는 책.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김종호 지음/228쪽/4,500원

글쓰기를 주저하거나 글을 더 잘쓰고 싶은 아이들 모두를 위하여 논설문·설명문에서 시, 소설, 촌극대본까지 다양한 글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인 글쓰기 안내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 일기쓰기 / 모둠일기 쓰기 / 자기 신문 만들기 / 독후감 쓰기 / 설명하는 글쓰기 / 신문 읽고 글쓰기 / 주장하는 글쓰기 / 기행문 쓰기 / 사랑의 해결사 / 이야기 나누기 / 시와 친해지기 / 공동으로 시쓰기 / 소설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소설 주인공과 상담하는 글쓰기 / 이야기 바꿔 쓰기 / 소설 이어 쓰기 / 공동으로 소설 쓰기 / 영상극 만들기 / 촌극 대본 만들기 / 독서퀴즈대회.

사 설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은 지켜져야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시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텔레비젼의 대담프로에서 김숙희교육부장관이 고교평준화의 폐기가 자신의 소신임을 밝히고 조만간 내신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식의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겠다고 천명함으로써 교육계의 논란을 빚고 있다.

망국적 과열과외열풍을 잠재울 목적으로 시작되어 지난 20여년간 실행되어온 고교평준화정책이 교육부나 교개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학습의 효율성,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또한 한 학급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극심한 학습능력의 격차가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과열과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한 교실에서 많은 학생이 교사의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외수업 등으로 학습진도를 앞질러서 교사의 수업과는 무관한 들러리로 앉아 있음은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의 숨길 수 없는 고질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고교 입시의 부활과 이에 따른 사립학교 등록금 자율화'가 학생 각자에 맞는 교육내용을 보장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아래 추진되고는 있으나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보다 더욱 큰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의 자율화로 일부 사립고교는 일류고교로 변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도 망국적 과외열풍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그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학력위주의 풍토'는 대학에서 고등학교까지 더욱 강화될 것이 뻔하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고교에 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의 평등은 급속도로 축소되어 갈 것이다.

또한 현행 성적에 의한 내신제는 고등학교에서도 여러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없이 고교입시선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일부 사립고교들이 부유층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으로 학교시설, 교사 등 모든 면에서 일류화되어 가는 반면, 국가는 공교육정상화의 책임을 포기하고 중등교육의 핵심을 사립학교에 내맡기는 사태를 빚을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일류고교병의 해소로 국교와 중학교의 과열과외를 진정시켰으며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평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 초·중학교 교육을 입시위주교육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상당 정도 교육정상화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살려야할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교평준화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평준화의 테두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학생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는 주범인 획일적, 주입식교육을 조장하는 콩나물 교실의 해소등 현행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기본적으로 빈부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지 말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확대해 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들을 보완하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 구성

참교육학부모회는 창립5주년을 맞아 평소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본회는 여러가지 교육사업을 벌여나감에 있어 교육 및 기타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지닌 자문위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게된다. 또 매 시기마다 벌인 활동과 사업을 바르게 평가했는지 자문도 받으며 학부모운동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음으로써 활동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본회 회칙 25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에 따라 회장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의 제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강명구(서울대 신문학과) 고철환(서울대 해양학과) 김기태(방송개발원) 김영종(도서출판 사계절 대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김학천(건국대 신방과) 리영희(한양대 신문학과) 박석무(민주당의원) 소병훈(도서출판 산하 대표) 송기숙(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전남대 국문과) 심성보(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안부근(미디어리서치 소장) 유홍준(영남대 회화과) 윤구병(도서출판 보리대표/충북대 철학과) 이광호(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실장) 이규환(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이기연(생활문화연구소 대표) 이수일(전교조 정책실장) 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장영달(민주당의원) 정미화(변호사) 정해숙(전교조 위원장) 천정배(변호사) 한명숙(여성단체연합 대표) 한민호(국교교사)

국교생 과외 허용 방침 백지화

국교생에 대한 국·영·수 등 일반 교과과외 허용 방침이 백지화됐다.

교육부와 민자당은 9월2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지역별로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학원 설립을 자율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던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기과열과외 등 부작용을 우려해 유보키로 했다.

대신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 방과후 학교시설을 이용, 이들 교과의 개별지도 및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교육청별로 적극 강구토록 했다.

그러나 학원의 등록제 일원화, 지역별 시설기준 다양화, 수강료 책정의 자율화 등 속진·월반에 관한 교육법 개정 법률안은 이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에의 연대

우리 사회의 성희롱문화의 추방에 획기적 이정표를 긋고 있는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이 2심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공동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는 10월 5일, 종로 YMCA에서 열린 '성희롱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에 참여, 연대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성희롱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은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공청회와 실태조사의 결과발표 등 대책활동을 단계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본회의 경우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제자성희롱 및 성추행의 근절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교육기자 간담회 개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 9월27일 서울 세실 레스토랑에서 창립5주년 행사의 하나로 각 언론사 교육 담당 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영미 서울지부 교육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학부모회 임원 및 회원 20여명과 교육담당기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 내용으로 학부모회의 지난 5년간 활동들을 살펴보고 오성숙 정책실장이 창립5주년 기념 공청회인 '교육자치제와 학부모운동'에 대한 소개와 이정남 정책실원의 학부모의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발표, 기지들과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여성사에서 부모를 돕는 책이 나옵니다

여성사는 출판을 통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남녀
모두에게 공유되어 생활 속에서
무르녹은 실천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키워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모를 돕는 책」에서는
양성성 회복과 민주주의 훈련에
초점을 맞춰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학부모 역할 등을
주제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사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애정어린 격려와 비판을
맘껏 해 주십시오.

여성사
주소 :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502-7 (2층)
전화 : 324-1885 / 팩스 : 336-1639

부모가 도와주는 행복한 그림그리기
1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박금숙·이은순 지음
아이에게 그려준 부모님의 그림이 아이의 상상력과 표현능력을 막아버린다면 속상하시겠죠? 이제는 그림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성장을 도와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
2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아버지가되려는사람들의모임 지음
권위적이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가 아직도 이상적인 아버지상인가? 가정과 아버지의 역할을 새롭게 생각해 봅시다.

외동아이 잘 키우기
3 하나 키우기 둘보다 어렵더라
기순신·함희숙 지음
혼자 자란 아이는 문제가 많다? 문제는 외동아이를 보는 부모와 어른들의 눈입니다. 한자녀 부모, 둘째아이를 고민하는 분들께 권합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아이의 행복한 글쓰기
4 우리아이 글쓰기, 이렇게 도와주자
김명숙 지음
차옴하는 글쓰기 돕기 / 주눅든 글쓰기 살리기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하도록 하고 글쓰기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찾아가도록 도와줄 수 없을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글쓰기 지도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가족신문 만들기
5 우리 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곽정란 지음
가족공동체 문화를 가꾸어가는 가족신문의 좋은 점과 제작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부부의 생활글이나 아이 그림, 할아버지 편지, 친척과 이웃 소식까지 담아낸 가족신문으로 가족사를 정리, 기록할 수도 있다.

아이와 장난감
⑥ 놀면서 배워요
문미옥 지음 <근간>

부모-자녀 관계
⑦ 자녀와 궁합이 맞습니까
이혜련·김성은·이기연 지음 <근간>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⑧ 예비 학부모 교실
권명자 지음 <근간>

영어 적기 교육
⑨ 우리아이 영어공부, 이렇게 도와주자
최진황 지음 <근간>

책하고 놀러가는 새로운 가족문화
⑩ 우리집 아이는 책을 안 읽어요
어린이도서연구회 <근간>

동화읽는 어른 되기
⑪ 어떤 책을 읽혀야 하지요?
조월례 지음 <근간>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공청회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자치제 정착되어야
회원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급

내일을 향한 회원들의 의지와 열의 가득
감사패받는 모범회원에 부러운 시선

1989년 9월 22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학부모들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창립한지 5년이 지난 오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운동단체로서 어떻게 역할하며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는 본회의 창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청회와 기념행사가 열렸다. 부산, 전주, 마산, 대구, 인천, 이리, 울산 등지에서 모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들은 본회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사회인사, 전교조선생님들, 교육개혁연대회의의 참여단체 임원들과 더불어 그간 끊임없이 성장해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현주소를 확인하며 창립 5주년을 자축하는 가슴뿌듯한 시간을 가졌다.

기념행사는 먼저 교육자치제와 학부모운동 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제 선거를 맞아 지방자치의 구호가 무성하게 터져나오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허울뿐인 현행 교육자치제가 개선되어 진정한 주민교육자치,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교육자치 및 학부모운동의 활성화에 기반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로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규환교수(한국교육연구소 소장)는 교육자치제하의 학부모운동의 의의와 바람직 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의 원리, 전문직 관리의 원리에 비춰 한국의 현행 교육자치제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자치제 하에서의 학부모운동은 양심적인 교사와 학부모가 단합하여 공동노력을 할 때 민주적 교육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학부모운동은 교육참여권이 법률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둘째 이상적인 교육자치제의 기본 목표로서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셋째, 사교육비의 감소 또는 폐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두번째 발제인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박두규(전남 교육위원)위원은 주민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고, 지방분권이 형식적이며,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예속되었고, 전문적 관리체제에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어 평가 비판받음으로써 내일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점에서 회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본회의 내부토론을 거쳐 정리된 발제에서 이대은감사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창립 이후부터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선언하고 긍정적 학부모의식과 학부모상을 확산시키면서 자주적 학부모운동의 모범을 창출한 점, 전교조를 강력하게 지원 연대함으로써 진보적 사회운동의 역할까지도 수행해 왔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회원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조직확대를 도모하지 못한점, 조직 방향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 교육정책에 대해 늘 비판에 머물고 교육대안을 마련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한계로서 자체 반성하였다. 따라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앞으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교육프로그램과 사업을 계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육개혁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타 교육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 그리고 진보적 학부모운동체로서 바로 서기 위해 이념적 조직적으로 회원들의 결속을 바탕으로 준비해 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공청회에 이어 곧바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기념행사는 김완자회장의 인사, 창립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에 대한 소개, 창립 5주년을 맞아 본회의 창립이 있기까지 여러모로 도왔던 여성단체연합, 본회의 창립과도 깊은 인연을 가지면서 그간 많은 연대활동을 벌여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숲속학교 등 어린이사업을 돕고 있는 전국교육대학학생협의회의 세 단체에게 드리는 감사패 시상식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참교육이란 말만으로도 외면당하기 일쑤인 사회여건 속에서 오늘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있기까지 묵묵히,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왔던 전국 각 곳의 모범회원 을 비롯해 학부모신문의 창기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학부모만평을 그리며 신문작업에도 참여해 오는 이숙자회원 및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외조 잘하는 남편에 대한 감사패 시상식에서는 잔잔한 감동과 부러움의 시선이 회원들 간에 교차되었고 이는 바로 참교육학부모회의 내일을 향한 참석자들의 참여의지와 열의로 모아지는 듯 했다.

이어 편찮으신 몸에도 불구하고 도종환선생님이 지어주신 교문 밖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보셔요/ 그들의 웃음속에서 마구 피어나는 들꽃송이/ 달려오는 발걸음마다 솟구쳐 오르는 새들의 날개로 시작되는 축시, '진짜 어머니 아버지들'이 낭독될 때는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임에 대한 자긍심과 뿌듯함이 밀려오는 듯 했다. 기념행사는 창립부터 오늘의 참교육학부모회가 있기까지 회장으로서 활동해오신 김영만 전 회장님이 작사 작곡한 학부모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새벽밥을 먹고 지방에서 올라와 다음날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기위해 밤차를 타고 내려가는 열성적인 지방회원들의 모습에서 밝은 참교육학부모회의 내일을 보는 듯했고, 한편으로 서울지역 학부모회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아쉬우면서 지방회원들에 대한 미안감이 못내 여운으로 남았다.

〈정리:정책실장 오성숙〉

허울뿐인 교육자치제 개선에 한 목소리

학부모신문 구독신청

1년 구독료:일만원
신청전화:(02)675-9068
지로:7605806
체신부:013185-0042323

학부모 신문 기자 모집

학부모 신문에서는 이땅의 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참여를 바랍니다. 경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취재·편집·사진·워드프로세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실태 조사 — 학부모 의식·학교참여·교육자치제

특집기획

학부모와 교사가 부담없이

참교육학부모회에 '학교 교육

지난 90년 3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돈봉투 없애기운동'을 시작한지 1년후, 이 운동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사회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돈봉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4년후인 올해 7월에 실시된 학부모의식·학교참여·교육자치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9월 창립5주년 기념 공청회의 기초자료로서 준비되고 실시된 것이다.

그 조사내용과 분석결과를 정리해 본다.

Ⅰ. 설문조사의 설계와 목적

이번 설문조사는 정책실 임원들이 직접 만든 설문 문항을 전문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아 다시 수정한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8개 문항은 학부모의식에 관한 9개 문항, 학교참여에 관한 12개 문항, 교육자치제에 관한 3개문항, 참교육학부모회에 관한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전국조사로 발표하기 위해 본회의 전국조직을 통해 1천2백부 수거를 목표로 1천5백부를 배포했으나 수거한 설문지를 분실하거나 사고 지회의 경우 조직적 미비로 인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9백부 가량을 수거할 수 있었다.

수거된 설문지를 일일이 점검하여 다시 미디어리서치에 통계처리와 조사분석을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6대 도시에 국한된 대도시조사로 설계되었고 아깝게도 2백부 가량의 기타지역 설문지가 사장되어야 했다.

조사지역은 수도권 도시를 포함한 전국 6대도시 즉 경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며 조사대상은 국민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주부, 표본수는 7백19명이며, 조사방법은 유치조사(질문지를 맡긴뒤 며칠후 찾아오는 방법), 표본추출은 비례할당 및 유의추출법(인구비례에 따라 지역 할당하여 조사에 적합한 학부모를 추출), 조사일시는 1994년 7월1일부터 30일까지였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특징은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의 순서로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루었고 고졸이상, 월평균 생활비는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자녀수는 2명이, 학년별로는 국민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았고 본회 회원보다는 비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83.3%)

설문조사의 목적은 본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첫째, 학부모들의 교육여건·교육개혁에 대한 의식상태를 점검해보고 '돈봉투 없애기운동'이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고자. 둘째, 학부모들이 기존의 학교내 학부모조직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셋째, 다가오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자치에 대비해 교육자치제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고. 넷째, 참교육학부모회에 대한 인지도 및 활동 방향을 물어 창립5주년의 활동을 점검·평가하여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Ⅱ. 설문분석 결과

1.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

우리사회의 교육여건에 대해 학부모 10명중 9명(90.9%)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또한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51.8%)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획일적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45.9%)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44.3%)의 순서로 응답했다.

이는 교육 대통령을 자처한 김영삼정부의 교육정책이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교육여건 또한 나아진 것이 없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감에 있어 가장 앞장서야 할 주체에 대해 과반수가(57.7%) '정부'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25.1%), 교사(11.7%), 사회단체(4.2%)의 순서로 꼽았다. 상호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이같은 응답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힘있는 집단은 정부, 즉 학부모나 교사보다는 교육관료층이며 이들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참조)

2. 학교 교육에 거는 기대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서 '지식습득'(18.1%)보다는 '인성교육'(77.3%)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반면, 현 학교교육에서는 '지식습득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80.5%) '인성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66.3%)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불일치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체능교육에 대해서는 83.7%가,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84.2%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좀더 인간적이고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자녀의 담임선생님 방문

지난 1학기동안 학부모들은 평균 2.3회 정도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평균 2.2회, 중학생자녀 학부모 평균 1.1회, 고교생 자녀학부모 평균 0.8회였다.

담임선생님을 찾아본 이유로는 '학교에서의 학부모 모임소집' 즉 학기초 학급 전체회의를 포함한 것이 41%로 가장 많았고 '예의상'(29.6%), '자녀교육에 대한 상의'(27.9%) 등의 순이었다. 찾아뵙지 않은 이유는 '자녀에게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어서'(22.1%) '학교나 선생님은 어렵게 생각되어서'(17%)순이었다. 이는 학부모가 선생님과 만나 자녀문제나 교육을 의논하기에는 아직도 높은 장벽 즉 돈봉투나 교육주체로서의 자각 미비 또는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의 열악함으로 교사와 학부모간에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

또 선생님을 찾아뵐 때 선물, 학급비품(도서), 돈봉투, 상품권, 간식 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86.6%였고 '전혀 가지고 가지 않는'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가지고 가는 86.6%의 사람들은 선물(67.6%), 돈봉투(35.6%), 학급비품 및 도서(31.6%), 상품권(19.6%), 간식(13.7%)의 순서로 내용물을 응답했다.

4. 학교참여 형태 및 내용

지난 1학기중 학부모의 72%가 학부모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기초 학급전체회의에 참석한 것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참여한 학부모 모임으로는 '어머니회'가 4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성회'(26.7%) '청소년단체후원회'(11.1%) '명예교사회'(7.7%) 등의 순서였다. (표3참조)

학부모모임에 참여한 동기는 '자녀를 위해서'(43.9%)가 가장 많았고 활동한 내용은 주로 '찬조금 및 회비징수'

학부모 열명중 아홉명이 우리 사회의 교육 여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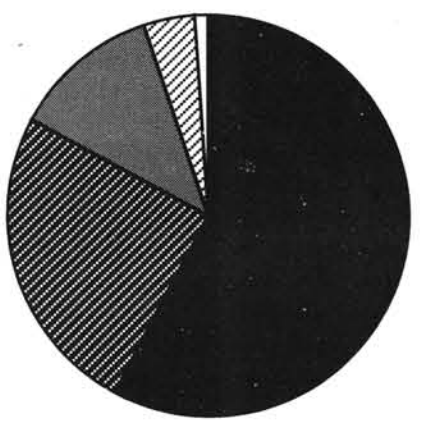
이숙자

만나는 정기적 통로 마련해야

개선 앞장서주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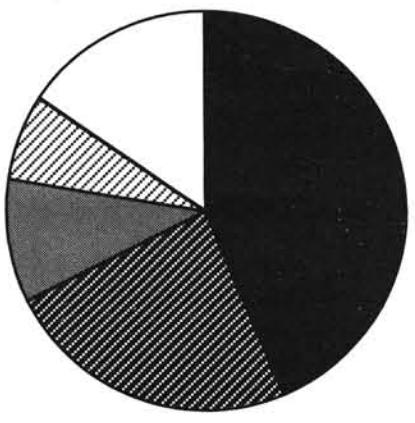
(69.3%)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21.6%)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8.7%) 만족하는 편이다

〈표1〉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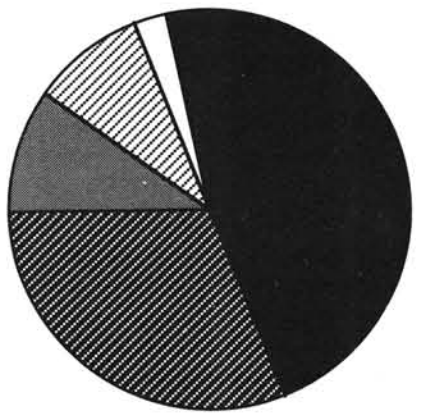
(57.7%) 정부
(25.1%) 학부모
(11.7%) 교사
(4.2%) 사회단체
(1.1%) 모두 다

〈표2〉 교육여건 개선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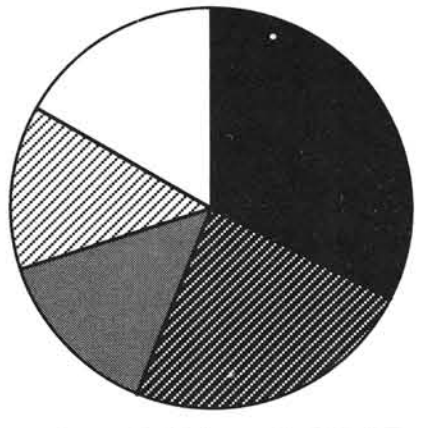
(49.1%) 어머니회
(26.7%) 육성회
(11.1%) 청소년단체 후원회
(7.7%) 명예교사회
(17.8%) 기타

〈표3〉 참여한 학부모 모임



(43.9%) 자녀를 위해
(30.7%) 학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돼
(10%)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9.2%) 담임선생님의 요청으로
(2.9%) 별 생각없이
(3.3%) 모름/무응답

〈표4〉 학부모 모임 참석동기



(26.3%) 찬조금 및 회비 냄
(19%) 학부모 요구사항 전달
(11.1%) 선생님활동 후원과 식사대접
(10.8%) 학생지도
(13.5%) 기타

〈표4-2〉 학부모 모임 활동내용

(26.3%) '선배님들의 활동 후원과 식사대접'(11.1%)이었다.

이는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참여했다기보다 여전히 재정적 후원자로서 학교의 일방적 요구에 내 자식만 위하는 이기심으로 참여한 바람직하지 못한 학교참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4참조) 모순되게도 64.8%의 학부모가 현행 학부모 모임의 개선점으로 '내 자녀 이기주의의 치마바람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답변했다. 두번째 개선점으로는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정기적인 협의 장치 마련'을 51.7%나 응답함으로써 자녀를 위한 교육적 상담의 필요성이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다.

5. 교육자치제에 대하여

92년이래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에 대해서는 '알고있다'는 응답이 57.7%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2.3%로 예상외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또한 '알고있다'는 응답자중 81.9%가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현행의 '지방의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보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고 51.8%가 응답했다. 57.7%의 응답자가 교육자치제를 안다고는 했지만 교육위원회의 활발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현행 선거방식에 있다는 심도있는 인지는 확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육자치가 아직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교육자치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인 주민참여는 '아이들의 교육내용(숙제, 체벌, 부당대우 등)을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항의한 경험이 있다는응답이 8.2%에 불과했고 8.2%의 항의 경험자중 과반수가 넘는 59.1%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써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주민의 참여나 의사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대하여

본회에 대한 인지도는 63.7%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본회를 알게된 경로는 '회원이나 친지'(46.3%) '매스콤'(40.2%) '학부모신문이나 지역 소식지'(10.1%)로 나타났다.

'현재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학부모들의 건전한 학교참여를 권장하는 단체'(51%) '돈봉투없애기운동을 벌인 단체'(37.9%) '학부모들의 권익을 옹호, 대변하는 단체'(29%) 등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지향해야 할 활동방향으로는 '학교에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6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 대변'(59.4%) '지역사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46.1%) 등이 높게 응답되었다.

본회에 대한 인지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점, 매스콤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반면 학부모신문이나 각 지회별 소식지가 고유의 역할인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학부모신문이나 지역소식지를 통한 인지도가 불과 10.1%로 나타남)은 본회의 자체 반성과 분발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또한 학부모들이 본회의 현재 활동으로 '건전한 학교참여'에 가장 높게 응답한 점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학교교육 개선'을 가장 많이 꼽은 점은 91년도에 학교참여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임원 및 회원들이 건전한 학교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압력단체로서 또는 학교안에서 건전한 학교참여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정책실 이정남 자료제공:미디어리서치)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천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첫아이를 낳고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착하지, 쮸쮸하자, 이제좀 자거라 등등으로 시작된 잔소리, 3.4kg될 때까지 0살이 15살될 때까지 크기에 따라 세월따라 잔소리의 종류, 형태를 바꿔가며 해왔던 내 주특기(?). 요즈음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저녁 잠들때까지 나를 향해, 남편을 향해, 아이들을 향해 쏟아놓으며 산다. 심지어 나이를 들면서부터는 부모님들께도.

아침시간 - 얘 일어날 시간이다. 빨리 준비해라, 아침을 먹어야 한다, 흘리지 좀 말아라, 먹었으면 그릇을 설겆이 통에 넣고. 왜 어제 도시락 안내놓니? 도시락 좀 깨끗이 먹고와라, 신발주머니 챙겼니?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도대체 몇 학년인데 아직도 네 일을 네가 못하니?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라 뒷사람 기다리잖니? 머리좀 잘 빗어라, 길건널때 차 조심해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라, 인사도 안하고 가니? 적어도 15가지나 잔소리를 해야 무사히 학교를 보낸다. 겨우 90분에 15가지나 되는 잔소리니 평균 6분에 한번씩 한 꼴이다. 그러나 이것도 날씨에 따라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마구 늘어난다.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라 잊어먹지 말고. 니가 늦게 일어나고 왜 신경질이냐! 준비물을 저녁 때 챙겨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하니! 저번에 샀는데 언제 잃어버리고 또 사는 거냐 등등.

오전시간 - 난 왜 이렇게 애들을 못살게 굴까. 애들이 엄마를 얼마나 지겨워할까. 허구헌날 잔소리해도 왜 우리애들은 똑같은 잘못을 자꾸할까. 왜 난 애들이 여유를 갖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까. 난 언제나 우아하고 멋있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아이들이 오면 얘 힘들었지? 수고했구나. 피곤할텐데 간식먹고 좀 쉬어라. 이렇게 교양있게 P·E·T교육 받은 엄마답게 아이들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오후 - 현관에서 얼굴을 마주한 순간 교복에 뭘 잔뜩 묻히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인사도 없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오는 아이. 얘 넌 왜 학교 다녀오면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못하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옷꼴이 그게뭐냐?

현관에 신발을 누구보구 치우라고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니! 양말부터 벗어라 냄새난다. 오자마자 TV는 왜 켜니? 숙제는 없니? 곧 저녁 먹을텐데 무슨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니? 넌 언니하고 싸우러 집에 오니? 책가방 좀 정리해라. 아침에 치워놓은 방꼴이 금방 이게뭐니! 구몬 산수 했니? 밀리지 말아라.

내일 준비물 챙겨라. 운동화, 체육복, 실내화 미리 미리 빨것 내놓고. 그렇게 빈둥거리지 말고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해라.

슈퍼가서 두부좀 사다 줄래? 다짐했던 교양은 온데간데 없고 저녁먹을 때까지 15~20가지 잔소리를 또 퍼붓고야 만다.

식사시간 - 얘 수저 좀 놓아라. 기도하고 먹어야지. 지저분하게 먹지 말아라. 소리내지 말고, 음식 이것 저것 헤집지 말고, 물쏟을라 조심해. 먹으면서 발 흔들지 말고, 반찬 골고루 먹어라. 좀 천천히 먹어라. 물도 좀 먹어가며. 다 먹었으면 그릇 치우고 오늘 누가 설겆이 당번이니? 그릇좀 깨끗이 씻어라.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물 너무 세게 틀어 놓지 말고 또 15가지 이상 잔소리를 했다.

저녁시간 - 뛰어다니지 좀 말아라. 싸우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 TV좀 그만보고 공부 좀해라. 제발 좀 깨끗이 씻어라. 입었던 옷 정리 좀 해라. 저녁인데 음악소리 너무크다 줄여라. 내일 아침 또 못 일어날라 일찍 자라. 밤도 늦었는데 무슨 전화냐.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어라. 목욕탕을 쓰고 났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 정돈 좀 하고 나와라. 머리를 감았니? 책 좀 보고 자라. 불끄고 자거라. 잘자라.

최소한 60가지에서 공부에 관한 얘기나오는 날에는 100가지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아이들은 편안히 잠든다. 거기다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편안한 잠도 못자는 수도 있다.

심야 - 나는 우울해 진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이런 엄마 때문에 잘못되어 지는건 아닌가. 나의 이런 모습을 남편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이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살다 늙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왜 나는 좀더 절도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가? 내가 꿈꾸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불안감에 이어 그래도 나는 화초에 물주듯 영양가 높은 잔소리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하며 애정어린 잔소리를 끊임없이 계발해 내는 것이 나의 나아갈 바임을 깨닫게 된다. 주말이면 주말에 어울리는 잔소리, 방학이면 시간을 엄청늘여 종류도 더욱 늘여야 하며(딸이 둘이므로) 여자들이면 해야하는 일들에 관한 잔소리, 다른 집을 방문할 때 예비로 하는 잔소리, 손톱 발톱 깎을 때면 신체에 관한 잔소리까지 나는 끊임없이 해야한다. 다만 화풀이가 아닌 교육적인, 짜증섞인 소리가 아닌 애정어린 목소리의 잔소리를 계발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건강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것을 지켜 볼 것이다. 95%의 비난섞인 잔소리에 5%정도의 칭찬밖에 못듣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양질의 잔소리를 쏟아부을 것을 약속하며 나는 나에 대해 퍼붓는 잔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편안한 잠을 잔다.

옆방에선 꿈속에서도 엄마 잔소리를 듣는지 아이들이 뒤척거리고 가끔씩 소리도(웃음 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내며 잘고 있다.

〈관악 동작지회 신난희〉

인터뷰

본회 자문위원 이규환 교육연구소 소장

"풀뿌리층 학부모 운동 매우 중요해요"

참교육학부모회 창립 5주년 기념 공청회에서 주제발표(교육자치제하의 학부모운동의 의의와 바람직한 방향)를 맡았고 본회의 자문위원이 되신 한국교육연구소의 이규환 소장님(전 이화여대 교수)을 방문해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견해와 학부모운동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민주화를 추구하는 여러 단체에서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주문이 왔을 때엔 사양했지만 참교육학부모회는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교사들과 연대해서 한국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수락을 했어요. 물질적으로는 도울 위치에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교육학을 가르쳐왔고 교육문제를 연구해 왔으므로 이론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한국의 진보적이고 자생적인 교육학 발전에 이바지해오신 이규환 소장님은 본회의 자문위원을 맡게 된 동기로 처음 말문을 열었다.

소장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연구소 역시 지난 89년 양심적 교수, 교사 및 진보적 경향의 소장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기관. 한국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실용주의 기능주의적 교육이론에서 벗어나 한국의 사회현실에 기초를 둔 민족 민주주의 교육이론을 창출해내고 실천하자는데 목적을 둔 자생적인 연구소이다.

대학에서는 비교교육사회학을 연구해 왔고 퇴직이후 교육연구소의 소장직을 맡아 일하고 계시는 노학자는 우리의 교육이 「민주지향적이지 못하고 국민대중에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수월성이니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잇따라 발표되는 정책들마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 자녀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며칠 전 교육부장관이 이야기한 고교입시부활만 해도 세계 선진국들 교육의 흐름이 고교교육까지 의무교육화하려는 추세인데 오히려 시대역행적이며 국민대중을 위한 교육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일련의 이런 정책들은 풀뿌리층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절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으며 그래서 한국 교육의 미래를 이규환소장은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까지 표현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운동, 학부모운동이 매우 중요하나 일제 때부터 내려온 교육계의 관료체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교나 교사는 스스로를 교육 전문가로 자처하며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교육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소장은 일본교육자치제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동경 나까노꾸주민들이 이루어낸 지역운동의 승리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역주민, 즉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풀뿌리층 교육운동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학부모운동이나 교사들의 운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학부모 운동도 민주적이고 양심을 가진 교사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더불어 교육학자의 민주적이론정립도 중요하하지요.. 점차 보수화돼가는 교육 현실 속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꿔갈 수 있을 거예요.」

참교육학부모회가 전국적이며 자생적인 학부모 조직임을 높이 평가한다는 이규환 소장은 출발 당시의 이념이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학부모운동의 성패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경험담이나 사례발표를 통한 학부모교실, 매스미디어사업, 공청회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자상한 지적까지 해주셨다.

〈조봉호 기자〉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②

자녀를 부모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자

지난번에는 좋은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은 올바른 대화법이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부모자녀 사이도 대화가 제대로 소통되어야 바람직한 자녀지도는 물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손님같은 존재"로 한발 물러선 넉넉한 마음 필요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건전한 자녀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부모와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대화'란 양자가 서로 똑같은 지위에서 대등한 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대화'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보다는 아래라는 상하개념에 사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흔히 자녀는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자녀를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한풀이의 존재로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개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결코 부모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보다는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면에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소중함이 부모보다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부모와 대등한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만 자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들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라는 그릇된 통념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건 아닌지요.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별개라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는 어느 일정 기간 나에게 머물다 떠나 보내야 하는 '손님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짐이 될 때 부모자녀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손님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중하고도 성심을 다해 배려하고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접대를 받은 손님은 결코 그 후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도 부모들이 자신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접을 받고 자란다면 저절로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되고 그런 마음을 지닌 자녀는 결코 잘못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올바른 대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학습하는 것보다 선행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부터는 구체적 대화법을 위한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

〈PET 강사 이정진〉

미래의 유망직업

(4)호텔 지배인

관광업에서 호텔업은 필수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아무리 호텔을 잘 지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세련된 인력없이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호텔지배인이 필요한 것이다.

호텔은 무려 230여종의 직종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 다양한 직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호텔업무가 원만하게 운용되도록하는 사람이 바로 호텔지배인이다. 호텔지배인의 업무는 객석예약, 객실판매, 접객, 회계, 식당, 방, 홍보등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제반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조정하여 종사원의 근무상태를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호텔은 특급관광호텔 110곳을 포함하여 모두 330곳이며 관광업의 활성화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호텔지배인이 되려면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3-4월에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은 총지배인, 1급지배인, 2급지배인 시험으로 나누어진다.

2급 지배인 시험은 대학에서 관련관광학과를 전공하거나 호텔의 현관, 객실, 접객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단,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2급지배인 양성과정 졸업자, 4년제 대학에서 호텔경영분야 전공자는 필기시험 면제.)

1급 지배인 시험은 2급 지배인 자격취득자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가 볼 수 있다. (호텔의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종사한자, 2급 자격을 따고 2등급이하 관광호텔에서 총지배인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는 필기시험 면제)

총지배인 시험은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5년이상 실무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특2급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1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총 지배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자 호텔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호텔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는 총 지배인 자격 부여.)

현재 일하고 있는 호텔 지배인들이 모두 자격증 소지자는 아니다. 호텔은 학력보다는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취직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호텔의 모든 업종이 그러하듯 공채보다는 추천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호텔지배인이 되면 보수는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이다.

현재 한양대, 세종대, 경기대, 관광대학, 경원대등 12개 대학에 관광경영학과가 설치되어있고 38개 전문대학에 관광관련학과가 개설되어있다.

고졸자와 비전공자는 사설학원에서 3-6개월간 공부한 후 우선 호텔 접객종사원이 되고 이어 경력을 쌓아 응시자격에 해당되면 시험을 쳐서 지배인이 될 수 있다. 92년 현재 지배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수는 2급 지배인 1398명, 1급 지배인 252명이다.

호텔지배인은 서비스업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맞고 있으므로 밝고 낙천적이고 봉사적 기질이 있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좋다. 지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편이고 국제적인 체인 호텔일 경우 특히 국제세미나 해외연수의 기회가 많은 편이다.

국가는 관광업을 국책사업으로 밀고있다. 따라서 호텔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호텔이 편해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 호텔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또 수입이 높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매력적인 호텔지배인은 인기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명희 기자〉

우리말 유래 사전

박일환 엮음/ 이강로(前단국대 교수/ 한글학회 이사), 남기심(연세대 교수) 감수 / 값 6,000원

판에 박다 : 아주 똑같다. 천편일률적이다.
▶ 떡이나 다식(茶食) 같은 과자를 만들 때 나무로 떡판이나 다식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재료를 넣은 다음에 박아 내면 모양이 한결같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틀에 박다' 또한 같은 이치로 만들어진 말이다.

"아빠하고 나하고 판에 박은 듯이 똑같대요. '판에 박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엄마, 시치미 떼지 말라고 할 때 '시치미'가 무슨 뜻이에요?"
"……."
"엄마, 나보고 벽창우 같은 녀석이래요. '벽창우'는 또 무슨 말이에요?"
"……."
아이들이 자꾸만 이것저것을 물어오는데
글쎄, 그 뜻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우리말 유래 사전』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생깁니다.

"응, 그 말은 말이지……."

우리교육 전화 730-1273 팩스 (02)730-1528

학부모회 10월 행사 안내

월례회

중서부지회
· 날짜:10월18일
· 주제:학부모의 교육관
· 강사:전영미 교육부장
· 문의:634-4359

강서남 지회
· 날짜:10월 13일 10:30(목)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안건:신임 임원 선출과 하반기 사업보고(임시총회)
· 문의:634-4359

관동지회
· 날짜:10월20일 10시
· 내용-건전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대책
· 장소-방배동 청소년학회
· 강사-성폭력 상담소 강사

마산지회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역사기행"
· 날짜:10/22-23
· 장소:갑오농민 전쟁전적지 역사기행
· 문의:(0551)48-6264

전주지회
"학부모 문학기행"
신동엽 - 금강을 찾아서
· 일시:10/31
· 회비:약15,000
· 대상:회원이면 누구나
· 문의:(0652)231-6242

이리지회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 일시:10/8(토) 2시30분
· 장소:이리·일산지역 향토기행
· 회비:가족당 1만원
· 문의:(0653)856-0340

두밀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작은 학교- 큰 교육

두밀학교를 아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농촌 마을의 작은 학교.
하지만 스무명 남짓의 어린이들이 빼어난 자연경관과 자신들의 삶의 터전 한복판에서 뛰놀며 공부하는 작지만 소중한 배움터입니다. 그 배움터를 되찾고자 큰 교육을 바로 세우며 삶을 되살리는 참뜻을 함께 나누고자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언 제 : 1994년 10월 20일(목) 저녁 7시 30분
어디서 : 경동교회
함께 하는 사람들 : 김광석, 윤선애, 노래마을(가수), 나윤선(뮤지컬 배우), 이무성(연극인), 박성철, 박상래
입장권 : 1만원
문 의 : 교육민회 766-7327(조혜영)

1천만원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두밀학교를 살리기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폐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전달할 1천만원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뜻있는 분들의 정성어린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은행 373-21-0023-856
(예금주: 이정진)
신탁은행 2337-3416701
(예금주: 이정진)
문의: 678-9167

학부모 글모음집 원고모집

창립 5주년을 맞아 발간하고자 했던 글모음집이 원고부족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글모음집 원고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의 내용은 과외문제, 조기교육, 돈봉투, 체벌, 교육환경 등 교육에 관한 내용, 그 외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울고 웃던 이야기, 고민, 제안, 자아발견에 관한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원고지 15매 정도면 됩니다.

자연환경을 지킵시다! -천연세제-

· 천연샴푸 무장갑없이 장시간 사용해도 피부질환을 유발하지 않는 무독성 천연세제(1,800원)
· 쌀눈 비누 -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꾸는 전신 물비누 (4,800원)

교육모니터 모임

교육방송 어린이 드라마

「언제나 푸른마음」을 보고

한 조사연구서에 의하면 1988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평균 TV시청 시간은 평일 2~3시간, 주말에는 3~4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만큼 어린이 시청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어린이 시청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화영화는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재미를 주는 반면 수입만화 영화의 경우(전체 어린이 프로그램의 약 70%를 차지) 무분별한 폭력성, 잔인성, 사대주의를 부추기기도 한다. 이는 만화영화의 자체제작비가 수입단가의 50배를 넘는다는 수익성의 문제에 앞서 어린이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방송사의 무성의한 인식에 더 큰 원인이 있다 하겠다.

KBS, MBC, SBS의 이런 경향에 반해 E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프로그램들이 편성 되어 있어 타방송사 어린이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때 뚜렷이 돋보인다.

그중 매주 토요일 5시40분에 방영하는 어린이드라마 「언제나 푸른마음」은 현재 다른 채널에서는 어린이드라마 방영이 전혀없는 속에서 신설되어 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학교와 가정생활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으로 용기와 우정, 예절, 우리농산물 살리기, 협동생활 등 다양한 주제들을 현실감있고 자연스럽게 잘 나타내고 있다.

9월 3일에 방영된 「스타가 되고싶어」편에서는 연기학원의 모습등 유명 연기자와 영화감독을 꿈꾸는 요즘 아이들의 연예인 동경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탤런트「신은경」씨를 특별출연시켜 연예인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동경하는 어린이들에게 사실 스타의 길은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진실된 충고를 해준다. 형식적인 백마디 말보다 이런 실질적인 조언이 훨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란 생각이 들었다.

한편 아쉬운 점은 영화감독을 꿈꾸는 한 어린이가 고가품의 비디오카메라(그것도 일제 SONY란 상표명을 알수 있도록)를 들고 친구들을 찍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극의 주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 여건상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비디오카메라를 손쉽게 들고 다니는지 오히려 쓸데없는 위화감만 일으키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든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대화중 「짜샤」란 말이 나오는데 실제 생활에서 친구들끼리 그런 용어를 쓸지언정 공영방송의 특성상 순화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언제나 푸른 마음」은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속에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시청하면서 어린이들의 인성교육, 예절교육, 때로는 자연스러운 성교육까지도 대화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리 오말복〉

부끄럼없이 만들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해 주십시오

산하어린이 시리즈는 산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와 형식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는 이야기를 눈여겨보는 것은
산하어린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읽어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생활이야기
16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차돌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17 비오는 날 알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21 공부는 왜 해야 하노 한 교실 어린이
28 튕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5 날마다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6 민요기행 신경림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51 천연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과학이야기
38 39 48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62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4 악착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역사이야기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3 4 5 임꺽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일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58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백봉기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58 59 68 소년독립군 주몽이 1·2·3 김정민

인물이야기
7 전태일 위기철
33 윤동주 정진구
69 신체호 김서정

창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묵
9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19 딸꼬마이 이상권
26 하루나라 하루왕 이준연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24 도둑 마을 장문식
25 회초리와 혼장 윤기현
25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27 아기장수 조호상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30 섬마을 아이들 신용행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46 작다고 깔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첨지의 메주콩 이재복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55 사장이 된 플랭장수 박상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57 하느님이 우리옆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 각권 값 2,800~4,000원/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산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전화 392-7641 팩스 313-2582